

광주·전남,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신청

‘시스템반도체용 차세대 패키징’ 공동유치 전략기술로 선정

광주시와 전남도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동 유치를 위한 전략기술로 시스템반도체용 차세대 패키징을 선정, 27일 신청서와 육성 계획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화단지 후보지인 첨단 1지구와 3지

구 일대가 글로벌 반도체 패키징 기업인 앰코테크놀로지를 중심으로 관련 산업기반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라고 시·도는 설명했다.

계획서에는 지역 산업 기반시설과 입주 기관 현황, 기회요인, 특화단지 육성 비전과 중장기 발전 방향, 세부 사업별 실행계획 등을 담았다.

현 정부 대선공약, 국내 유일의 초광역 반도체 특화단지와 RE100 기반 에너지 믹스(재생에너지+원전) 실현 최적지, 신

속한 부지 확보, 용수와 교통 등 안정적 기반시설(인프라), 인공지능(AI)·자율차·전력 등 풍부한 전후방산의 이점을 강조했다.

광주·전남반도체 특화단지가 조성되면 지역 전반에 걸친 경제적 파급효과와 함께 케이(K)-반도체 핵심 요충지로서 공급망 안정화와 함께 국가 경제안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시·도는 기대하고 있다.

광주·전남은 역량을 한 데 모아 특화단

지 유치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전남은 이번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신청에 전국에서 유일하게 광역자치단체 간 협력으로 신청서를 제출했다”며 “지역의 강점을 활용, 대한민국 반도체산업 경쟁력을 광주·전남이 선도하는 한편 지역균형발전의 근거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광주·전남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차세대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가진 지역”이라며 “시도민의 염원인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를 위해 광주시와 원팀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광주와 전남은 지난해 7월 반도체 특화단지를 민선 8기 상생 1호 협력사업으로 정하고, 9월 반도체산업 육성 추진위원회와 12월 반도체 인재양성위원회를 발족하는 등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박상지·최황지 기자

광주시 감사위 ‘단수사태’ 상수도사업본부 특감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지난 12일 단수 사태와 관련,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특정감사에 나선다.

27일 광주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덕남정수장 송수관로 밸브 고장으로 많은 양의 수돗물이 유실되고, 수돗물 공급 중단 등에 따른 시민 불편을 초래한 데 대해 상수도사업본부를 상대로 특정감사를 진행한다.

지난 12일 발생한 덕남정수장 송수관로 밸브 고장으로 2만8576세대에 수돗물 공급이 중단되고, 수돗물 5만7000여 톤이 유실됐다. 또 덕남정수장 입구 농경지

와 도로가 침수됐다.

감사위원회는 오는 3월6일부터 17일까지 상수도사업본부에 감사장을 설치하고, 수돗물 사고 원인과 노후관 등 시설물 유지·관리 적정 여부, 재난안전 문자 전파 적정 여부, 긴급복구 적정 여부, 노후시설물 개량 계획, 사고 행동매뉴얼 적정성 등을 감사한다.

이갑재 광주시 감사위원장은 “이번 덕남정수장 송수관 밸브사고 원인 등을 명확히 규명, 문제가 확인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박상지 기자



여수 해상 가두리 저수는 피해 현장 점검하고 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27일 저수우으로 피해를 입은 여수 돌산읍 해상 가두리 양식장을 방문, 양식 어류 폐사 피해 상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전남도 ‘취약계층 영양개선’... 농식품바우처 33억 지원

전남도가 취약계층 영양개선과 농산물 소비확대를 위해 추진 중인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을 올해는 강진·해남·장성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전남도는 2021년 해남, 2022년 해남·장성을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해 총 41억원을 들여 9831가구를 지원했다.

27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사업 규모는 33억원으로, 중위소득 50%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8086가구에 국내산 농축산물을 지원한다.

농식품바우처 신청 희망자는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바우처 카드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카드는 신청 즉시 발급되며, 사용은 3월부터 11월까지 가능하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기준 월 4만원이며,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지원금은 매월 1일 충전되며 당일 말일까지 사용할 수 있고 사용 잔액 2000원 미

만은 이월된다.

구매 가능 품목은 국내산 신선채소, 과일, 우유, 계란, 육류, 잡곡, 꿀, 두부류, 단순가공채소류, 산양유 등 10개 품목으로 한정된다.

바우처카드는 관내 농협 하나마트, 로컬푸드 직매장, 남도장터, 온라인 농협몰 등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거동 불편자들을 위해 꾸러미 배달 방식도 함께 추진한다.

올해부터 전남도 대표 농수축산물 종합쇼핑몰인 ‘남도장터’에서도 농식품바우처로 결제할 수 있다.

강성일 전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시범사업이지만 도내 취약계층 식생활 개선과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 보완 사항을 적극 발굴해 2025년부터 본 사업으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황지 기자

전남도, 2610억 투입 미래세대 위한 유기농업 집중육성

친환경농업 확산·품목 다양화 안정적 판로 확보 등에 집중

전남도가 올해 2610억원을 들여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경영 안정과 미래세대를 위한 유기농업을 집중 육성한다.

27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유기농업 육성 주요 정책 방향은 유기농 중심 친환경농업 확산, 소비자가 선호하는 과수·채소 등 인증 품목 다양화와 안정적 판로 확보 등이다.

분야별로 유기농 확산과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보전을 위해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87억원’, ‘유기농 생태마을 육성 15억원’, ‘도양개량제 공급 170억원’, ‘친환경 유기농자재 지원 172억원’ 등 12개 사업

에 778억원을 지원한다.

친환경 실천 농가 생산비 절감과 소득 보전에는 ‘친환경농업직불제 148억원’, ‘유기·무농약 지속직불금 48억원’,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136억원’, ‘친환경농업 육성기금 70억원’, ‘친환경 비 집적화단지 인센티브 지원 20억원’ 등 15개 사업에 1364억원을 투입한다.

또 과수·채소 등 인증 품목 다양화와 친환경농산물 판로 확보를 위해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400억원’, ‘친환경 과수채소 전문단지 조성 30억원’, ‘친환경 학교급식 계약재배 청년농가 육성 12억원’, ‘수도권 향우 친환경농산물 지원 15억원’, ‘전남 친환경농산물 판촉활동 지원 10억원’ 등 9개 사업에 468억원을 배

정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남지역 친환경농산물 인증 면적은 3만6106ha로 전국 1위(52%)를 차지했다.

이중 유기농 인증면적은 2만4697ha로 전국인증면적의 63%를 차지해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전국화를 이끌고 있다.

강효석 전남도농축산식품국장은 “유기농업이 미래 생명산업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으로 국민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가 공급되도록 친환경농업 가치 확산과 소비 촉진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최황지 기자

광주시, 기후위기대응 어린이 교육으로 환경 감수성 ↑

광주시는 오는 3월부터 11월까지 매주 수요일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1~2학년 어린이를 대상으로 기후위기대응 어린이 환경교육을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시청 1층 기후위기대응 홍보관에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어린이들이 지구 환경의 중요성과 기후변화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구를 아끼게 하는 법인 찾기, 탄소중립 전래동화 구연, 홍보관 전시물 활용 탄소중립 실천생활 교육, 틀린 그림 찾기, 퍼즐 맞추기를 통한 기후행동 다짐

등 연령별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주제로 구성했다.

교육 신청은 매월 1일부터 20일까지 광주시 홈페이지에서 접수한다.

송진남광주시 기후환경정책과장은 “기후위기 시대에 미래세대를 위한 기후·환경교육은 필수”라며 “어린이들이 환경교육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그린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상지 기자

김대중컨벤션센터, 개관 이래 최대 매출 206억 달성

전년 대비 17.5% 증가

김대중컨벤션센터가 지난해 매출액 206억원(예산 결산 기준)을 달성, 개관 이래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

27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 따르면 이는 전년 매출액 대비 17.5% 증가한 수치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 매출액과 대비해도 높은 실적이다.

영업손실 또한 전년 대비 1억7000만 원 개선됐다. 지난해는 코로나19 주의 단계로 마이스(MICE) 수요가 회복되지 않은 시점이기에 이 같은 성과는 더욱 값진 결과라고 김대중컨벤션센터는 설명했다.

지난해 김대중컨벤션센터는 ‘꿈과 즐거움이 있는 마이스 전당’이라는 신경영비

전을 수립하고 신사업 개발·수익성 개선·경영체계 선진화·사회적가치 창출 등 4대 분야의 과제를 발굴, 각 과제별 추진 사항을 수립해 신비전 달성을 위한 전사적인 노력을 이어왔다.

그 결과 지난해 전시장 가동률 55.1%로 전년 대비 14.4% 증가, 전시사업 매출액 전년 88억 원 대비 23% 증가한 109억 원 달성, 지역 혁신산업 연계 신규전시회 4건 개발 등 센터의 핵심 사업 실적이 고무 향상됐다. 특히 2016년 이후 중단됐던 신규 전시회 개발에서도 성과를 나타냈다. 주류페스타 등 총 4건의 행사를 신규로 개최하면서 13억 원의 매출액 증가를 기록했으며, 이들 신규 사업에 대한 성장성 잠재력 또한 확인했다.

개관 18년으로 시설 노후화에 따른 고객 민원이 지속하자 센터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30년까지 단계적 시설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지난해 1차로 바닥 카페트 교체, 영상 장비 고도화 등 총 34건에 4억원의 예산을 들여 시설을 개선했다.

디지털 전환에 따른 환경 변화에도 발 빠르게 대응했다. 단위 사업별로 관리해 온 고객데이터 통합 시스템을 구축, 데이터 기반 경영을 실천할 예정이다.

김삼목 김대중컨벤션센터 사장은 “민선 8기 주요 공약사업인 글로벌 마이스 도시광주가 실현되는 가시적인 성과”이라며 “올해는 전시장 가동률, 전시사업 등 모든 영역에서 더 크게 성장시켜 시민들의 사랑에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박상지 기자

호남 최고 정론지 전남일보와 함께 하세요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